



김애란 김영하 편혜영 임철우 공선옥 정호승 나희덕 황동규 이대훈

2017년 스타 작가들이 돌아온다

김애란·김영하·나희덕... 한국문단의 대표 작가들 속속 신작 출간 예고

2017년 정유년에 스타 작가들이 돌아온다. 흥행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스타 작가들이 속속 신작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독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사실, 지난해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 시집 초판본 열풍, 시 르네상스 등에 힘입어 문학계에 활기가 돌아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하반기 불거진 '성폭력' 사태로 문학계는 모처럼 불어온 훈풍의 기쁨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새해에는 한국 문단의 대표 작가들로 꼽히는 이들이 창작집을 낼 예정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두근두근 내 인생'의 작가이자 2016년 제8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김애란이 올 여름에 문학동네에서 신작을 펴낸다. 일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은 문체가 장기간 김 작가의 신작 예고 소식은 벌써부터 독자들을 설레게 한다.

기발한 상상력과 새로운 소설 방법으로 신선한 작품을 선보여온 김영하 작가도 올 여름 문학동네에서 소설집을 낼 계획이다. 김영하는 2013년 장편 '살인자의 기억법'이 최근의 책이었다. 독창적 스타일로 빛났고 매력적인 소설 세계를 선보여왔던 배수아 작가도 가을께 작품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몇 년새 주요 문학상을 휩쓸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는 장강명도 6월 즈음에 첫 SF소설을 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나무에서 펴낸 '아스타틴'(가제)은 등단 이후 사회적 소설을 주로 써왔던 그가 어떻게 작품 변신을 이뤄낼지 주목을 끈다.

젊은 독자층으로부터 인기가 많은 황정은 작가도 민음사에서 연작 소설을 낼 예정이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상상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첫 소설집 '일곱 시 삼십이분 코끼리열차' 이후 지속적으로 좋은 작품을 써내고 있는 작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완도 출신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중견 작가 임철우씨는 문학과지성사에서 소설집을 발간하고 최근 2~3년 사이에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굵직한 문학상을 수상한 편혜영 작가도 문학과지성사에서 소설집을 펴낼 계획이다.

2016년 '폐허를 보다'로 만해문학상을 수상한 이인휘와 곡성 출신으로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를 펴낸 바 있는 공선옥 작가도 각각 장미에서 장편을 펴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솔·정지돈·손보미·김성중 등 젊은 작가들도 주요 출판사에서 장편이나 창작집을 펴낼 예정이어서 새해에도 '소설대전'은 한층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작년 시 르네상스로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성주문으로 일목지고 만 시단도 새해에는 명예 회복을 바른다.



새해 스타 작가들의 작품집 발간이 예고돼 있어 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사진은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시민들. <광주일보DB>

문단에서는 작년에 이어진 시 르네상스가 올해도 지속될 거라는 기대적인 낙관을 하지만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텍스트 발간이 얼마나 이루어질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학과지성사는 천양희·심보선·유희경·서효민·김민·박준 시인 등의 시집을 펴낼 계획이다. 특히 절판 시집을 새로 발간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문학고지성 시인선 R' 시리즈가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오규원 시인 10주기를 맞아 2월께 오 시인의 첫 작품집 '분명한 사건'(1971)이 재출간된다.

또한, 1978년 황동규 시집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로 출발했던

'문학과지성 시인선'은 올해 500호를 시선집으로 엮는다. 그동안 간행했던 시집 가운데 어떤 작품이 시선집에 수록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다.

장비도 새 시집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호승·신용복·나희덕·장석남·이대훈 시인의 시집 출간을 예고하고 있어 시인들을 좋아하는 독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민음사는 '주문제작, 시'들을 모아 가을에 출간한다. 블로그에 접수된 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젊은 시인들이 써주는 형태로 기존의 시집과 차별되는 작품집을 발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5·18이야기, 탄광 이야기, 직장의 경험... 조성현 첫 소설집 '눈 내리는 마을' 펴내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성현 작가가 첫 소설집 '눈 내리는 마을'(문학들)을 펴냈다.

1989년 '민족현실과 문학운동'에 '구암리 사람들'을 발표하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선 지 27년만에 첫 소설집을 발간한 것이다. 오랫동안 문단의 변방을 서성이며 습작을 했던 만큼, 각각의 작품이 주는 울림은 만만치 않다.

조 작가는 "독자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작품을 다듬는 기간이 길어졌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소설이 없어서 그동안 출간을 미뤘다"고 자신을 낮췄다.

모두 7편의 단편이 수록된 소설집에는 5·18이야기, 탄광 이야기, 직장의 경험 등 다양한 소재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담겨 있다. 사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경

계의 이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한편으로 길고 괴로운 방황과 마혹의 세월을 응시하기도 한다.

표제작 '눈 내리는 마을'은 그의 소설 세계의 지향을 엿볼 수 있는 대표 작품이다. 어느 시골 마을 소동이라는 소년이 집에서 키우던 토끼를 잃어버린다. 소동은 토끼를 물어간 늑대를 찾아나서는데, 자신이 키우던 사냥개가 토끼를

몰어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토끼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소설에서 작가는 분노와 혼돈, 상실감과 작개심을 문학적 장치로 의미있게 구조화한다. 조 작가는 "이번 작품집을 계기로 좀더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싶다"며 "앞으로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소설을 쓰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 출신인 조 작가는 전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총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적 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 광주 영화관에서 실황 중계방송

빈 필 1일·베를린 필 3일
메가박스 광주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를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다.

메가박스 광주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각각 대표하는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신년 음악회 실황을 중계방송한다.

빈 필하모닉의 신년 음악회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후 7시부터 생중계된다. 세계적인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의 지휘로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의 왈츠 곡들을 선사한다.

베를린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는 다음달 3일 오후 8시부터 지역 중계된다. 상임 지휘자인 사이먼 래틀이 지휘봉을 잡고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 우승자인 신예 스타 피아니스트 다닐 트리포노프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들려준다.

그밖에 드미트리 카발레프스키의 오페라 '콜라브리통' 서곡,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도 만날 수 있다.

관람료와 예매 등 자세한 사항은 메가박스 인터넷 홈페이지(www.megabox.c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면 된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사이먼 래틀

예스24 선정 올해의 책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네티즌 30만355명 투표
2위는 김제동 "그럴 때..."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이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선정한 올해의 책에 뽑혔다.

예스24는 30만355명 네티즌이 참가한 투표 결과,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이 6만2392표(20.8%)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출간된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은 기존 역사서와는 다른 스토리 방식의 서술과 풍부한 자료 등으로 인기를 끌며 후반기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2위에는 김제동이 쓴 '그럴 때 있으시죠'가 5만 1391표 (17.1%)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고, 헤민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은 4만334표 (13.4%)를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예스24는 투표에 앞서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폴꽃도 꽃이다', '자존감 수업', '종의 기원' 등 24권을 올해의 책에 선정한 바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데렐라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수근, 강성연, 김희철, 문희준, 최성국, 김태우, 한석준